

소수의 편측 후방구치 결손 환자의 치료에 관한 증례

원광대학교 보철학교실 이 정 우

부분무치악 환자에 있어 가철성 국소의치는 의치의 안정성, 힘의 분산등의 관점에서 양측성 설계를 원칙으로 하여왔다. 그러나, 소수치 결손시 가철성 국소의치는 의치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경제적 부담, 의치 장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등을 이유로 환자치료의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편측 구치부 소수치 결손으로 인한 유리단 국소의치의 경우 소수 결손치아의 기능회복을 위한 여러 지대치 형성등의 추가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 때 소수의 편측 후방치 결손 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가능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국소의치의 설계에 있어 양측성 설계는 의치의 유지 안정 및 제작시 지대치가 받는 역학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잇점이 있으나, 의치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 및 이물감이 있다. 편측성 설계는 설계의 단순성, 의치에 대한 부담감의 감소등의 잇점은 있으나, 의치의 안정이 감소된다. Telescope Crown을 이용한 의치 설계는 유지력의 조정이 가능하고 고정식보다는 위생적이고 심미적이며 수리가 용이하고 splint 효과도 있다. 그러나 지대치에서 강한 지지를 얻기 때문에 지대치의 치주조직이 건강해야 한다.

Extension bridge는 고정성이고 대합치의 맹출을 방지하는 잇점이 있으나, 최후방 지대치 원심부 치조골의 파괴를 야기한다. 임플란트 치료는 환자의 저작, 발음, 심리- 사회적 상태가 양호하다는 잇점이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이에 본인은 편측 제1,2 대구치 결손시 가철성 국소의치, Telescope Crown을 이용한 의치, Extension bridge,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